朝鮮日報

十四日夕刊

時評

駑馬가戀棧豆

分解 整理 征戰！이는今一年동안 朝鮮의運動線上에서 進行되기를바라는 온통이다 吾人은分解를力說한다 매우奇怪한것가트지마는 純正한主義를爲한 眞正한結合이아니오 情實的인傳統關係에依하야 苟且스러운結合의體系를持續하며 가는것은 돌이어 運動線을混亂케하고또는戰鬪力을 萎縮하는危險이동무하는까닭이다 그런故로分解하라고力說한다

×

民族運動者이나 社會運動者이나 또는階遇하게志士의班列에서優遊하는者이나 모다色彩鮮明 態度正確하게分解하라分解할터인데分解치안는것은 오즉駑馬가棧豆를그리워하는것거러 惰性的인盲腸에못미더함일뿐인까닭이다 그는돌이어罪惡이다

果然團合이냐？

×

分解를力說한다 그러나그는곳再整理를爲한分解를力說함이다 分解를爲한分解는勿論아모意味가업는바이다 그는오즉整理 即眞正한團合을再現하야 그의鬪力을强大케하기爲함으로서 비롯오意義잇고個値가잇는것이다 그리고非常한難關에處하야 다시右傾派에因한 戰線의一大分開를보게된오는날에잇서서는더욱히主義에因한 眞正한新團合이 하루라도밧부게出現하기를 高調치아니할수업다

×

在京思想各團體가 眞正한主義를爲한 新年부터의團合을爲하야 새로히團結하니 매우時宜에適한 動線上에서 업서서는 團合...

이決心잇느냐？

×

駑馬가棧豆를그리야 오즉躊躇逡巡하는...

...

北京의排日大會

外交部의逆襲抗議結果

◇于氏就任拒絶도此에起因

(北京十三日發) 日本公使가十二月三十一日付로써外交部에提出한滿洲出兵反對排日大會沮止의要求에對하야外交部는排日大會를沮止하라고하면몬저滿洲增兵을即時撤回하라고逆襲的抗議를하엿다其結果十四日의排日大會의火에油를注하게되야잇는데于右任內務就任의拒絶도是에依한것이라더라

許內閣의施政方針

閣議紛糾未決散會

(北京十三日發) 許世英內閣의施政方針은昨日의閣議에附議되야龔湛氏는極力段執政을擁護하야段氏가下野하면內閣存在의根據가업다고하고許總理는聯省會議를召集하야一切를解散하얏다하매易培基는此에反對하야聯省會議를召集하드라도恐컨데그것은軍閥의左右한바될터이니速히孫文의主張한國民會議를召集하야與佩孚等의法統回復論等에對抗하라고强硬히主張하야決定에至치못하고紛糾한데로散會하엿더라

津浦線又戰場化

國軍과李張聯合軍의交戰

掠奪、逆殺等의恣行

(天津十三日發) 國民軍第二、第三의兩軍과李、張聯合軍은九日以來吳橋、桑園附近에서激戰을交하는中이고尙且德州로부터徒步로歸來한日本人의談에依하면李軍의進路에當한津浦線一帶는掠奪、逆殺이無所不至하야不忍見의慘狀을呈하고婦女는何處에避難하엿는가影子도볼수업더라

議事進行討議

第一回司法權會議經過

(北京十三日發) 十三日居仁堂에서開催한一回法權會議는劈頭佛蘭西委員『다옷사인』氏(佛領印度支那檢事總長)가副議長에推薦되고次에『스도론』氏가議事進行規定을提案하야多少의討議가有한後改訂을加하야此를可決하고次回十五日의會議에中國側으로부터法典及司法行政制度、英佛으로부터 右材料를提供하기로하고約四十分에散會하엿더라

賠償金의最善用途

大部分은教育方面에

(倫敦十三日發) 『월리돈』卿을首領으로한英國代表一行은近近當地出發中國에 向할터인데該一行의使命은團匪事件賠償金의最善한用途를發見함에잇다右에對하야『월리돈』卿은賠償金의大部分을아마教育의目的에充當하도록決定할터이라고聲明하엿더라

羅災民救濟品 附加稅滿期

延期要請拒絶

(北京十三日發) 救濟에關한一割附加稅는六個月의期限으로來二月에滿期가되는대中國政府의期限延期要請에對하야外交團은是를拒絶하기로內定하엿더라

姜氏遺族慰藉

五萬元을贈呈

(奉天電) 張作霖氏는最近姜登選遺族에對하야慰藉料로五萬元을贈呈하엿더라

郭軍軍長二名

奉天顧問에採用

(奉天電) 郭松齡軍에參與하...

日人損害賠償

張氏調査命令

(奉天電) 張作霖氏는今般의內亂에對하야錦州新民에서日本人의受한損害를賠償하기爲하야各其關係官廳에對하야調査를命하엿더라

佛內閣又復危機

下院의財政案反對

(巴里十三日發) 佛蘭西下院財政委員會는財政案에對하야右財政案에依한新財源額十億六十萬法을削除하기로하야又復內閣의危機...

眞珠灣防備擴張

米海軍豫算決定內容

(華盛頓十三日發) 米國의新海軍豫算은布哇防備擴張을爲하야百...하기로하얏는데海軍三億一千七百萬弗에比하면一千六百萬...

濠洲議會開會

大航空船

建造力說

(華盛頓十三日發) 米國海軍長官『윌버』氏는航空...을代하야『로아노』號에... 보담二倍半의大航空...을述하엿더라

大規模의 고무栽培計劃

(紐育十三日發) ...

米炭鑛大爆發

百名坑夫生埋

(막크아니스타 十三日發) 當地方의炭坑이...한處에서爆發이起하야坑夫가生埋되야...에努力中이더라

膠鐵輸送杜絶

天津에서본 馮李戰爭雜觀 (四)

天津南開中學 金楨弼

5、悲絕慘絕한光景과尸體

6、村民의敍述

稅制整理案

卄一日議會提出

議會提出의重要法案

各派交涉會

諸般事項協議

無産黨準備會

第二回를東京서

溺死者二千名

墨西哥水害의詳報

◇屍體收容에軍隊動員

(아리샤나께노카려스十三日發) 南部太平洋鐵道社長은墨西哥의水害地로부터歸하야語하되『노야리도』州의溺死者는二千名을超하엿고아즉쓰구스판니냐方面에도住民의困苦가甚하야數個의部落을全滅되엿다하며更히墨西哥『시챠』로의電報에依하면墨西哥當局은死體의收容에加勢키爲하야駐軍衛生旅團에對하야戰時編成을하야動員하라고命하엿더라

國粹宰相

무소리니

切開手術承認

(羅馬十二日發) 剛情傲慢으로써有名한伊國首相『무소리니』氏는今回愈히醫師의勸告를從하야非常히危險하다稱하는切開手術을受하기로承認하엿더라

普選施行令

樞府修正에反對

(東京電) 樞府에對한普選法施行令稱査委員會가政府原案에十餘點의修正假決議를하고政府의同意를求하라고兩者間에展轉折衝을遂한結果政府는樞府의修正個所中罰則의削除其他字句의修正에는...

田中推薦은

當分猶豫키로

(東京電) 十三日의協同會幹事會에서田中義一男의補缺推薦은猶豫하기로決定하엿더라

◇上村男推薦乎

(東京電) 協同會는十三日午...

憲、本提携進捗?

本黨態度漸次軟化

內閣擁護宣言

憲政院外團大會

憲政會

對議會策

本黨去就調查

眞野九大總長

畢竟辭職

神戶稅關疑獄

意外方面에波及

食料改良增殖

技術官會議

東海岸線

其實現은

東部海岸線

實現은時期問題

客月倉庫業況

滿鐵諸附屬事業

分離키로決定

仁海定期航路休航

辭令

八面鋒

鐵筆寫眞

警察의集會禁止頻頻

三重縣事件‖ 調査會突然禁止

리유는대단히불온하다는것 서류까지압수하고금지선언

조선로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에서 일본삼중현(日本三重縣)사건의 진상을됴사하기위하야각사회단데와 협의한후 됴사회를 조직하리라 함은이미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로농총동맹에서는이미서류를 인쇄하야 각단데에발송하라 하얏는데 소관종로서에서 일데서류를 압수하야가는동시에 상무 집행위원리준태(李準泰)씨를 소환하야 금지선언을하얏다는데 금지리유는불온하다는것 이라더라

羅災民調査‖ 報告會도禁止

동대문서에서

시외고양군독도면(纛島面)에잇는아성구락부(我聲俱樂部)에서는 수해민을구케코저 노력하는면민유지들의의촉(依囑)을바더 리재민을 됴사하든바 지난십삼일에 일으려면민대회를열고 됴사경과를 보고하려 하엿섯는데 돌연소관동대문서에서금지를명령하엿다하며이금지에대하야면민일반의비난이만타더라(동부)

『칼』『로ー사』兩氏 追悼會一切禁止

엇던단톄의엇던집회든지 량씨추도면은모조리금지

십오일은『칼』『로ー사』량씨가순사한날임으로 각사회단데에서는 모다이날을 긔념하기위하야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그동안여러가지 준비중에잇섯는데 경찰당국에서는 이에대한 일톄집회를금지식히기로되여이미아래의두단데는강연을중지하엿다한다 ▲漢陽靑年聯盟 ▲京城無産靑年會

仁川서도禁止

상부명령이라고

만국무산청년(萬國無産靑年)의선구자로 추앙을밧는「칼、리부크넥트」씨와「로ー사、룩센부르」녀사가지금으로부터칠주년전에 반동파에게 무참히죽은일월십오일을 긔념하기위하야 인쳔사회각단데(仁川社會各團體)에서는 강연회 추도식 긔념식(講演會、追悼式、紀念式)등을거행하라든것을 인천경찰서 에서는 돌연히상부의 명령이라고절대금지를명하얏다더라(인천)

鎭南浦仁川間 朝鮮郵船休航

결빙으로인하야

진남포(鎭南浦)와인천(仁川)간을왕래하는조선우선(朝鮮郵船)항로(航路)는 결빙(結氷)으로동긔간은 휴항하기로 되엿는데이로인하야 조선텰도국에서 취급하던련대화물(連帶貨物)은지난십삼일까지 취급 하엿다더라

國境對岸地方에 中國人强盜頻頻

사일오후에도동포세사람이 권총강도를맛나돈을쌧겻다

지난사일 오후세시경에 평북의주군비현면(平北義州郡枇峴面)에거주하는김용문(金用文)(三三) 김정원(金正元)(三一)로인측 (盧仁勝)(二九)세사람이 중국봉황성현(中國鳳凰城縣)데서 떠나 대보(大堡)로 향하야가는 도중황령자(黃嶺子)에서 중국인 권총강도(中國人拳銃强盜)세명이돌연히 나타나서 권긔세사람을결 [illegible] 다더라(안동현)

悲運에싸힌 淑貞女子學院

경비곤난으로 폐교하게되어

함남함흥읍내 숙뎡녀자학원(咸南咸興邑內淑貞女子學院)은 [illegible]

대지난십이일오후한시에본회원내에 데십사회직원총회를 개최하고 서후방침문뎨의한결과 유지방침에 대하야다소의 동정을엇고 찬성위원(贊成委員)을널리 모집하기로 결뎡하엿다는바뒤떠러진 녀자교육을위하야 만히동정하여주기를바란다하며원장과 원감은다음과가티 선뎡하엿다더라(함흥)
院長 韓泳[illegible] 院監 韓[illegible]興

平壤府內에 又火災

십사일오전에 평양부경제리에서

평양부경제리(平壤府鏡齊里)이백륙십륙번디엄익수(嚴翊洙)의집에서 십사일오전여섯시반경에 발화하야건물사간한채가 전소되고 진화하엿는데 손해는약천여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방금됴사중이더라(평양지국뎐화)

主人이맛긴 貴金屬가지고逃亡

인천살든예기가 주인물건을휘령도주

본적을 인천부룡리(仁川府龍里)이백이십팔번디에두고 동리일백이십팔번디 최성인(崔聖仁)의집에서 예기(藝妓)노릇을하고잇든 장설중매(張雪中梅)(二三)라는 녀자는 지난십일에주인되는 권긔최성인이가 맛기어두엇든 금지환(金指環)외에 몃가지 품칠점을 가지고 어대로도망하엿슴으로 경찰에고발하야 각디에 수배(手配)하고 톄포코저한다는데 가격이이백삼십사원 어치나된다더라

光州靑年衝突은 雙方의積年宿怨

여러해동안반복하던끗테 청년회원이로동회관습격 光州勞働共濟襲擊後報

긔보‖전남 광주청년회(光州靑年會)회원오십여명이 광주로동공제회(光州勞働共濟會)회관을 습격하야 회관을파괴하고 회원을무리란타하야 두명의 중상자까지내엿다함은 작지 면분으로보도한바와 갓거니와 그후의소식을들은즉 권긔광주 청년회원들은 십삼일에 또다시공제회관을습격하야문서와인장(印章)을 쌔내여본후동회관을봉쇄(封鎖)하얏슴으로 공제회원이 봉쇄한 회관을열고 실내를 뎡리하엿는바 또다시하오 여섯시쯤하야청년회원이 달려와서 회관을봉쇄하얏다하며 광주 로동공제회는 전남에 가장유력한단데로 소작운동에 공헌이만타하며 현청년회중요간부정상호(鄭尙好)는광주의거부(巨富)이며 정상호의 토디소작쟁의로 희생된 공제회원이 사십여명에달하는데 이런일거리일로 쌍방의적년숙원으로그리된것이라는바이번폭력단의배후에는모모부호등이잇는듯하다더라

◇습격당한광주로동공제회관의현장

技競運動 早大軍과의 籠球戰을(下)

보고서나의所感 金YK生

나는이제이번께임의最終戰인對中火氣早大軍第三回戰에關한 [illegible] 初戰의慘敗를復讐하라는捷偕한空氣가場內에떠도랏다 後半戰의當初에도또한二點을悠悠하게先取하야合九點을加하매 이로써이미勝敗의分岐點은判然히갈리는感이不無하얏다 그러나異常하게도이로부터當時審判은파울宣言이자젓다勿論파울이업섯 다는것은아니겟지마는 [illegible] 헐慣敗이엇다고나는본다또그만큼무슨決心도업지는안일것이요反面에所得도만흠줄로안다또로이것이半島運動界의新年첫勝戰이엇고또그께임이이가티되얏다는點에서나는만흔刺戟이잇슴을自期하며또이新興競技의隆盛을바라고붓친다(妄言多謝)

身病과生活難으로 八旬老翁이割腹

압못보는딸한아를두고 괴로운세상을떠나버려

지난십이일새벽다섯시에해주북욱뎡(海州北旭町)삼백륙번디침술영업(鍼術)하는정자중(鄭子仲)의집에서는 참아사람의눈으로는보고잇슬수업는 일장의참담한 비극이이러낫다 그비극의주인공인 당년 칠십팔세되는 조길화(趙吉和)라는로인으로그는일쪽이 가세가빈한하야 이리저리류랑생활을 하다가 늣게야어든딸자식한아이 압흘보지못하는불구자가되얏다 그리하야나희가 장성하매 그럭저럭권긔정자중에게

그일신을 의탁케하엿스며마츰그의안해되는이도이세상을떠나고말엇슴으로로인은또다시몸으로경긔강원과서으로해중렬도를도라다니든바심로신쇠하야접첨만년이될수록일신을의탁할곳이도모지업는자긔의신세가가련함이엇든지 하는수업시 보기실흔 불구의자식이나마 자긔몸을 조끔이라도 의지하야볼곳이라고는 그딸밧게업서 지금으로부터 약사년전에 권긔사위정자중의집에가서 이래저래 가사도 돌보아주고잇든바 우연히칠월십이일부터

병이들어 침식을잘하지못하고 이래일년이나 남도록병석에서 신음하게되엿다 그러나 그사위도 시대에뒤진 침술영업으로만 몃식구가 생활을하야가자니 버리는 벌이는 벌분되지아니하야참으로 그날그날의 쎄니를 쓰리기도 심히곤난한터이라 여지로병에누은장인에게 비록정성은잇다하나한그릇의약인들변변히먹일수가업섯다 이러한모든사정을잘아는이로인은한층더자긔가이세상에더잇는그만큼장래가잇는 몃식구의 신세를 괴롭게하야 줄것을 자긔마음에괴로워하야 별서부터 몃번이나

그목숨을 쓴허버리기로 결심하고 가슴속에칼을 여러번품엇섯다 한다 그러나 그만집안사람에게 들킨배되야 목뎍을달치못하고 잇다가 드듸여이날새벽에일오려 어떠케광중을 장만하야 두엇다가 사람들이 곤히잠들을 엇슬때에 자긔의배를 칼르고야 말엇햇방에 자든사람들이 놀나세여본즉 벼는 이미지낫는지라 즉시의사를 불러다가 치료코저하엿스나

헛수고에 지나지못하엿다 그러나금한대로 도립해주의원(道立海州醫院)으로메여다가 주사를하얏스나드듸여 그는비참한최후를마치엇다한다(해주)

朝鮮酒品評會 십팔、십구량일간

경성부령회의실에서

경성조선 주양조품평회(京城朝鮮酒釀造品評會)에서는 오는십륙일까지주류케조장(製造場)과양조품의 심사를 마치고십팔일십구일 량일간에 한하야경성부령회의실에 출품을 진렬한후일반에게 관람케 하리라더라

電車와衝突되여 七十老人重傷

서대문뎡에서

시내현뎌동(峴底洞) 리완순(李完淳)이라는 칠십이세된 로인은 십사일오전열한시 이십오분경에 서대문뎡(西大門町) 이뎡목 팔십팔번디 압흘지나다가 의주통(義州通)을 출발하야 동대문(東大門)을가는 일백팔호뎐차와 충돌되야 머리에타박상을바더 인사불성이된것을 즉시경성병원(京城病院)에 데리고가서 응급치료를 하엿는데전치까지 약사일간을 요하리라더라

投書一張으로 多數靑年을取調

주인업는방에서가택수색 장시간취됴후에내보내여

해주군추화면청단주재소(海州郡秋花面靑丹駐在所)에서는 지난십일아츰에그시내에잇는동업동아일보분국긔자안성근(安成根)씨의집을수색하고이어 동시대일보분국긔자리영래(李泳來)씨의집에일으러리씨가출타하야집에업는사이에 돌연가택을수색하고 드듸여 두청년을소환하야 장시간취됴를하더니 아모련 단서도 엇지못하고할수업시 방송하얏다하며 그외에도 수명의 청년을 불러다 취조하다가모다 방송하얏다는데 듯는바에 의하면 엇던사람의투서한장으로 그와가티된것이라는바일반은황해사(黃海社)문데에관한것이나안인가하고의아한다더라(해주)

玄米食論者

대규박사의발표

일본대판약학전문학교장(大阪藥學專門學校長) 대규(大規) 박사는약(藥)이질병을낫게하는것이아니라신데(身體)의질병은신데가낫게하는것이며 약은다만 그것을보됴할뿐이라는 학설을 발표하고일방으로는 현미식론자(玄米食論者)로서 현미는살어잇는것이며 백미(白米)는 죽은것이라하야 현미밥의화학뎍해석(解釋)을주어「비타민、씨」가잇는지 업는지 설명할수업스나 엇잿든 신비뎍(神秘的) 작용이잇다고발표하엿다더라(대판뎐보)

絶壁에서 墜落慘死

참사한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평남성천군 통선면하리(平南成川郡通仙面下里)이백삼십일번디에사는정신병자 장린각(張麟珏)(三三)은지난오일 하오네시반경에 집안사람업는틈을타서 집을뛰여나 봉류강연안에 잇는십오륙장이나되는 무산십이봉 층암절벽(巫山十二峰層岩絶壁)에서그만실족이되여참사가되엿다더라(평양)

大醉한巡査가 婦女를毆打傷害

술취한순사가또차와서 조선녀자를학부로따려

김포군 대곳면대릉리(金浦郡大串面大陵里) 최익영(崔益榮)의안해되는 녀자는 지나간칠일오후 일곱시경에 동면약암리(藥岩里)심성택(沈星澤)이라는사람의 환갑잔치에 갓다오다가동군양곡(陽谷)주재소추권(秋田)순사부장에게무조건으로 구타를당하야 방금위독중에잇다는바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그녀자는권긔환갑집에서자긔집으로돌아가든길에밥은칩칩하고인적은끈어젓는데별안간뒤에서 발자취소리가 들림으로깁절에 길아래밧으로 비켜서잇는바서투른

조선말로 누구냐하면서 일본인순사가 술이 잔뜩취하야달려옴으로 황겁한 마음이일층더하야 밧가운데로 검검더들어갓섯다 그것을본 순사는짐짓가지안코 추종함으로 공포심이극도에 달한녀자는그케야 속보로 어등면 대벽리(大碧里)황모의집으로뛰쳐갓섯다하며그순사는 긔어히추격을하야 그집까지가서 하등의 됴사도업시그녀자를 무수란타하야 증상을식히어 의복은전부 피투성이가되엿섯는데 그때그광경을보든 리강은(李康殷)이라는 상제가따리지못하도록 만류하다가 또한그순사에게 구타를 당하엿슬뿐아니라 방립과의복까지

전부파렬 되엿다한다그런데아무죄목도업시혹독한구타를당한 그녀자의남편인 권긔최익영의 권하는말에의하면 분한마음으로는 그순사를걸어 곳고소를할 생각이나 후일에또엇더한해독을바들가 렴려하야 고소는하지못하고 다만울분히 생각할뿐이라하며 이정경을 보고들은 그부군면민들은 추권순사의잔학무도함을 분개하며 따러서김포경찰 당국의태도를 주목중이라더라(인천)

親母와義父를毆打

달라는벼한섬을안준다고 술을먹은후폭행을하엿다

황해도장련동부리(黃海道長連東部里) 김진택(金鎭宅)(四二)은 지난오일 오후열시경에 술이만취되여 자긔의부(義父)되는 김군보(金君甫)(六九)의 집에가서 의부의 멱살을쥐고따리며 친모 [illegible]

日本茨城縣에서 漁夫十一名溺死

심한풍랑으로말미아마 고기잡이배가뎐복되여

일본자성현 록도군대동촌(茨城縣鹿島郡大同村) 삼릉추뎐랑(三輪秋田郞)의소유의 어선(漁船)에 열한명의 어부가타고 십이일오후네시경에부근바다에서고기를잡다가 심한풍랑으로 말미암아뎐복되여서 권긔승조원전부는 바다에 빠저죽엇다더라(수호뎐보)

滿洲歸還兵에게 京城湯屋公開

십오、십팔량일간

중국만주(滿洲)에 파송하엿든 일본병졸은 십오일에일천명 또십팔일에 일천명이 경성에도착하게될터인데 경성탕옥조합(京城湯屋組合)에서는권긔량일에는 귀환부대(歸還部隊)를위하야 탕옥을 무료로개방하기로하엿다더라

女子斷髮‖ 可否討論會

이십일오후에 데사청년회주최로

데사청년회(第四靑年會)주최로 오는 이십일오후 일곱시부터시내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녀자단발의가부』에대한토론회를개최하리라더라

京義線汗浦驛에서 女子一名轢死

차를타다가 잘못하야떠러저서

지난십삼일 오후네시오십분경에경의선한포역(京義線汗浦驛)을 출발하려는 데륙십이렬차에 녀자한명이 타려다가떠러저 치여죽엇는데시데는검시후 경관에게인도하엿다더라

同宿者의돈을 竊取逃走

부여군주막에서

자칭충남부여군 추양면 초촌리(扶餘郡秋楊面草村里)에산다는 강긔하(姜基夏)(三六)는지난십일새벽에 양주군미금면금곡리(楊州郡渼金面金谷里)일백십구번디 황장성(黃長成)의주막에서 시흥군신동면 량재리(始興郡新東面良才里) 심재희(沈載熙)(二九)라는사람과가티자다가권긔 심재희의 잠이깁혀짐을 엿보아 『전대』속에너허허리에차던현금륙십삼원을 절취하여가지고 어대로 도주하엿다는데 경찰측에서는범인을 체포코저 로력중이라더라

地震八百八回

일본화가산현 일년동안디진통계

지난십이일 오후열한시 오십구분에일본 화가산현(和歌山縣)에는강진(强震)이 잇섯다는데 작년중그디방의 디진은 팔백팔회나 된다는바 하로세번식이나 거듭진동한때도 잇섯다하며 그중에 멀리진동된것이 륙십팔회이고 사람에게감동되도록 강한디진이 이백십구회라더라(화가산현뎐보)

妙齡美人이 鐵道自殺

신의주부근참극

지난열하로날오전여덜시삼십분에 신의주역에도착하는 렬차가 신의주역에서 약십사뎡(約十四町)가량되는 데이털교(第二鐵橋)를 막다다르려할즈음에엇던 묘령의미인한사람이털도길가에서방황하다가 자살할려는 구든결심을가지고 털도선로(鐵道線路)안에 뛰여들어가자 권속력을다하야 오든긔차는 아모리 [illegible] 농련한긔관수(老鍊機關手)라도엇절수가업시 그대로 진행하기때문에가련한미인은 [illegible] 면부(面部)이전부써서어지고 일편 다리가선어지어 무참히즉사하엿는데 이급보를접한 신의주경찰서와 안동현경부보(安東縣警部補)가 의사를다리고현장에출장하야 검시하엿다는데 [illegible] 그런데그죽은원인은알수업스나 아마생활난이나 혹은가뎡불화인듯하다더라(신의주)

行路死亡者

부내락원동에서

[illegible]

종명자

[illegible]

有望한洗浦

開墾事業으로 감자밧게못심든곳이 량뎐옥토가될터

강원도평강군고삽면세포리(江原道平康郡高揷面洗浦里) 고흥농장(高興農場)에서는작년부터토디개량(土地改良)의목뎍으로 논(畓)을 만들기시작하야 작년에 시험으로 만평(萬坪)가량의 논을푸러서 벼(稻)를 오백여석(五百餘石)이나추수하얏다는데원래세포(洗浦)는 긔후가 차서재작년까지도감자(甘藷)이외는 아무곡식도심으지못하던곳이든바 고흥농장주임(高興農場主任)고문룡(高文龍)씨의로력으로이와가티 량뎐옥토가 준비하게되엿슴으로 세포의장래는 매우유망하다더라(세포)

取調해보니窃盜

수백원어치를훔쳐

본적을 평남순천군 순천면서변리(順川郡順川面西邊里)륙십사번디에두고 주소가 일뎡치못한 김래형(金來衡)(二九)이는지난십이월이십팔일 오후두시경에 시내죽쳠뎡(竹添町)일뎡목길가에서 뎐당표한아를 팔고저하다가 서대문서원에게 검거되여 취됴한결과봉래뎡(蓬萊町)양정고등 [illegible]

新春男女音樂大會

來十六日夜七時半 鐘路靑年會館에서

會費 白券八十錢 紅券五十錢 讀者割引

主催 普專親睦會 後援 朝鮮日報社

가뎡부인

성황으로 마친 신춘녀류강연

회장의 상하층이 입추의 여디가 업시 대만원

경성녀자청년회주최와 본사후원으로 신춘녀류대강연회를 연다함은 이미 본보에 보도한바이어니와 예정과가티 십삼일오후칠시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 대셩황속에 개회되엿는데 연사 류영준(劉英俊) 박원희(朴元熙) 주정미강(住井美江) 삼씨의 피가 끌는 듯한 긔염은 입추의 여디가 업는 만장청중의 박수갈채를 바덧다 이제 당야에 참예하지 못한 분들의 유감을 만일이라도 덜기위하야 불충분하나마 긔자의 속긔한바를 차례로 긔록코저 한다

演題 諸家의 戀愛觀
演士 朴元熙女史

지금 영미(英米)등 선진국의 남녀들은 성적도덕문뎨 즉 련애문뎨가튼것은 이미 그 중요한 부분이 해결됨줄 암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아즉 이 문뎨에 대하야 상당히 시비가 분운합니다 그 시비량자가 다 아즉까지 리론상으로든지 학리상으로든지 확실한 근거가 업는것갓슴니다 그럼으로 이량자가 다 리론상 과학리상의 근거를 가지며 그 문뎨의 해결을 정당하게 하기위하야 십구세긔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까지의 이 문뎨에 대하야 철저하게 연구하고 주의주상을 확립한 여러선배의 련애관을 소개하랴고 함니다 불란서대혁명의 결과 자본주의사회가 봉건사회를 대신하야 서게되고 이 자본주의사회의 출현으로써 종교, 철학, 문학, 론리등 각방면에 지대한 동요가 생겻슴니다 즉 여긔서 재래의 성적 도덕관념상에도 변화가 생기게되야 련애라는것이 문뎨되게 되엿슴니다

一, 입센의 작품

이제부터 입센의 작품을 소개하겟슴니다 「헨릿구 입센」은 보통으로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할뿐아니라 참으로 근대구주에서 이러나는 여러가지 사회문뎨에 대하야 누구보다도 먼저속히 그것을 자긔작품중에 너허서 해설(解說)하고 비평하랴 하엿슴니다 그중 부인문뎨 련애문뎨가튼것도 매우 만히 말하엿스니 그 작품중에 데일중요한것은 「人形의家」「幽靈」「海의夫人」등이올시다 지금 이 작품들을 자세히 소개할수는 업슴으로 요점만 대강말하겟슴니다 「人形의家」의 녀주인공 노라는 자긔의 남편 「헬마」의 병을 곳치랴는 일편단심으로 남편이 모르게 이천원가량이나 되는 돈을 빗어더쓴후 내직(內職)을 시작하야 이돈을 갑허가며 병의 간호를 하엿슴니다 그러나 그돈을 빗엇슨 그 수속이 법률상 저촉이되야 사서위조죄로 협박을 당하엿슴니다 이때에 노라부인은 자긔남편에게 수치가 미칠가하야 두려워하엿슴니다 그리하야 모든책임을 자긔가 담당하랴고 각오하엿슴니다 그러나 남편헬마는 그부인이 그러한범죄를 한것도 결국은 자긔때문인데 이에대하야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도로혀 그부인을 욕하며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이 은혜를 원수로 갑흐랴느냐하며 극단의 말까지 하엿슴니다 여긔서 노라부인은 처음으로 남자의 말하는 애(愛)라고하는것은 완악한것과 또한 남자들이 쉽게 동물로 보는데 불과한것이다 녀자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야 모든것을 희생하고 개인을 도라보지아니하는데 남자편에서는 어대까지던지 자긔본위의 공리주의(功利主義)인것을 통절히 늣기고 녀자도 일개의 인간으로 대우를 밧어야 되겟다는것을 깁히 깨다랏슴니다 그리고 노라부인은 이때까지의 결혼생활을 도저히 그대로 계속할수업다하고 남편에게 리혼을 청하엿슴니다 그때 노라가 그남편과 문답한 말 한구절을 말하겟슴니다

「헬마」당신은 대관절 그러케하고 당신의 신성한 직무를 버릴수 잇는가

「노라」나의 신성하다는 직무가 무엇인가

「헬마」내게 무를것도 업시 남편과 자식에게 대한 직무다

「노라」나에게는 신성한 직무가 또 잇다

「헬마」그럴수가 잇는가 무슨의무란말이냐

「노라」내자신에 대한 의무다

「헬마」무엇보다도 데일 먼저 너는 남의 안해이요 어머니다

「노라」그것은 내가 밋지 안는지가 벌서 오래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다 사람이 되여야 하겟다 너와 꼭가튼 사람이 되여야겟다 한시가 밧부게 이러케 될야고 한다

「노라」는 이와가튼 입장에서 팔년간 동거하든 남편과 사랑하든 세아이를 뒤에두고 남편의 붓드는 소매를 뿌리치고 집을 떠나간것입니다 이 간단한 문뎨중에서도 충분이 알수잇는것과 가튼 헬마는 노라부인을 향하야 당신은 첫재로 남의 안해요 어머니라는 말을 하엿슴니다 즉 이것이 재래일반사람들의 부인에대한 견해(見解)라고 할수잇슴니다 그러고 안해요 어머니라는것은 결국 남자에게 노예가 된것이라고 하는데 불과합니다 여긔서 노라부인이 녀자는 남의 안해가 되고 어미가 되는 이외 인간으로서의 직무가 잇다고하며 남자와 한가지로 녀자도 일개의 인간으로서 동등이 되지안흐면 아니되겟다는것을 주장한것이 확실이 재래남녀의 결혼관계에대한 일종의 혁명이라고 아니볼수 업슴니다 지금와서는 이 견해가 결코 사상으로 새로운것이 아니나 이 작(作)이 일천팔백칠십팔년에 처음으로 공개된때는 대단히 새로운것으로 인증하엿슴니다 그 증거로는 이 각본이 한번무대에 연출되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다 얼골빗이 변하야 의론이 분분하엿슴니다 좌우간 이 작이 남녀대등의 주장 부인해방의 주장이 일층 선명하게 된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입센은 이 작품으로 부인운동에 첫종을 울리엇다고 할만합니다 그다음에는 「幽靈」의 내용을 말슴하겟슴니다 유령의 주인공은 「아ー빙그」라는 과부니 당초에 남편이 잇던 사람인가를 알지못하고 결혼한것이 차차로 오해가 되엿슴니다 그 부인은 그 남편의 방종하는 행위에 견댈수가 업서서 하로는 자긔의 가장신뢰하는 목사압헤 다려가서 사정을 호소하엿슴니다 그리고 리혼하기를 의론한즉 그목사는 한번 시집을 가면 언제까지든지 남편에게 쫏는것이 처(妻)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리혼을 하지못하게 하엿슴니다 그리하야 그부인은 못 울고쳐고 살다가 그남편이 죽은후에는 그아들을 기르는것으로 유일의 락을 삼엇섯는데 그아들은 아버지로부터의 유전병으로 세상을 떠낫슴니다 그녀자가 일평생을 허무하게 보낸것은 사랑업는 결혼을 한까닭이라 하겟슴니다 「海의夫人」도 역시 입센의 작품중에 가장의미잇는 작이니 련애의 자유라는것을 력설한것입니다 즉 「에리다」라하는 녀자가 현재에 동거하는 의사 「왕그로」를 버리고 련인에게로 가랴하엿슴니다 이것을 그 의사가 알고 녀자를 향하야 「지금부터 갈곳으로 가는것이 조타 모든것을 자유로 하여라」하는 리해잇는 말을 하엿슴니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바든 그순간부터 다시금 남편에 대한 사랑을 깨다랏답니다 ‖(계속)‖

◇……(상방) 출연한 세 변사 …… (하방) 강연회 텽즁……◇

녀자예술생 본사견학
지난십삼일에

시내 황금뎡 일뎡목에잇는 경성녀자미술강습원(京城女子美術講習院)생도 십오명은 김의식(金義植) 장선희(張善禧) 두선생의 인솔아래 십삼일 오후다섯시경에 본사를 견학하엿다(사진은 견학단일행)

傳說 예크의 고양이 (三)

『산즘생이라니』

『아리스』가 예크를 향하야 재차 무르니 예크는

『고양이예요』

하고 방긋이 우섯슴니다 아리스는

『무어』

하고 깜작 놀내는듯이 눈을 똥그러케 하더니 다시

『야 그건 더조타 고양이를 팔면 돈이 더만히 생길텐데』하고 말하엿슴니다

예크는 고양이를 내여놋는것이 무엇보다도 섭섭하게 생각되엿스나 『아리스』의 권고를 듯고 드듸여 배에 갓다 실엇슴니다 다른 하인은 예크를 보고 놀리며 우섯스나 아리스는 오히려 측은히 생각하며

『고양이가 업서서 쥐의 성화를 밧게되겟거든 이 돈으로 한마리 사거라』

하고 돈을 주엇슴니다

三, 고양이의 항해

고양이를 태운 배는 필경 바다길을 떠나가고 마럿슴니다 맘씨조치못한 차집은 다시 「예크」에게

『너는 어리석은 자이다 저러한 고양이가 든것이 엇더케 팔릴줄 생각하느냐』하고 귀치안케 구럿슴니다 그뿐아니라 각금 가다가 때리는 일도 잇섯슴니다

그리하야 「예크」는 다시 이전고향에 도라갈 생각이 간절히 낫슴…오로 어느날 밤중에 남모르게 주인의 집을 나왓슴니다 그리하야 힘을 다하야 허둥지둥 거러갈때에 어느곳에서인지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리어왓슴니다

『여긔가 어듸입닛가』

하고 「예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럿슴니다

『[illegible]』한곳이오 크게고 그 사람은 대답하엿슴니다

이때에 또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어 왓슴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운데에는

『녕넨 도라가라 「론돈」「론돈」세번 시장 도라가라 도라가라』

하는듯한 소리가 들리엇슴니다 이것을 들은 「예크」는

『그러타 다시 「론돈」으로 도라가자 엇더한 고생이 잇든지 그것을 참어보자! 지금 시골로 도라가면 무슨 소용이 잇느냐 차집에게 욕을 어더먹어도 조타 마저도 조타 무엇이든지 견듸어 보자!』

이러케 생각을 돌리어 다시 『와ー렌』의 집으로 도라왓슴니다 그리하야 전날보다도 더한층 정직하게 몸이 달토록 일을 하엿슴니다

그때에 『와ー렌』의 배는 오래동안의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먼나라 항구에 도착되엿슴니다 그리하야 실고간 물건은 넘금에게 팔게되엿슴니다

가뎡부업으로 상당한 『풀솜』트는 방법 (二)
李晟煥

셋재, 번독이 며틔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그것이 여러군데에 흐러지는 일이 업도록 할것과 또 다음에 이것을 또 떠낼때에 서투루게하면 손에 솜이 감기는 일이 잇나니 극히 주의하야 고요히 손끗으로 또 떠내되 한아도 엉키는것이 업도록 할일

넷재, 나비나온 고치는 처음 벌리는데를 흔히들 나비나온 구멍으로 하나 그러케 하는때는 가장자리가 묵어지며 두터워지는데가 잇스니 반듯이 반대되는 쪽을 벌리는것이 조코 또 손에 씨우는것이 넘우 두터우면 펼때에 손이 압흔일이 잇나니 주의하여야 할일

다섯재, 가튼고치 가운데에 배처음에 씨우는것과 맨나종에 씨우는것의 두알만은 형상이 조코 두터운놈을 골라서 할일

여섯재, 손추게 고치 또는 아조 조치못한 고치를 쓸때에는 처음에 씨우는것과 나종에 씨우는것을 좋은 고치로하면 훨신 조흔솜이 되는일

일곱재, 고치를 쌔트릴때라든지 또는 물에 씻칠때에는 끈(紐)이 나지안토록 가만히 가만히 다룰일

여덜재, 고치를 삶아서 오래두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누른빗치 나는일이 잇스니 이것을 주의하여야할일

상의
상극되는 결혼

『문』설혼한살된 남자와 스물한살된 녀자와 결혼을 하랴하는데 사주가 맛지아니한다하야 결혼을 주저하는중입니다 이러한 사주니 궁합이니 하는것을 직혀야하겟슴닛가 그대로 무시하여도 조켓슴닛가 (公州一老婦)

『답』이러한것을 관계하고 아니하는것이며 직히고 아니직히는것은 그사람의 교육이나 신앙문뎨입니다 정 그러케 궁합과 사주가 조치못한것이 마음에 거릴길것가트면 억지로 그 결혼을 할것이 업겟지요 마는 이러한것은 대개 미신입니다 (일긔자)

◇……칠년전에 백림에서 참사한 『로ー사』부인……◇

가투에 실린 시조백수 (其九)

◇ 락양야든봇에 련캐는 아이들아 잔련캐라다가 굴근련닙다칠세라 련닙헤길들인원앙선잠깨여 (成世昌)

◇ 혜지고돗는달이 너와긔약두엇던가 합리에자든쏫이 향긔노아맛는고야 내엇지 매월이 벗되는줄을 낫던가 (安玟英)

◇ 자규야 우지마라 네우러도 속절업다 울거든 네나우지 날은어이 울리는다 아마도 네소리들으면 가슴압하

◇ 황하수 맑다터니 성인이 나시도다 초야군현이 다이러나단말가 어즈버 강산풍월을 누구를주고 (鄭忠信)

◇ 추강에 월백커늘 일엽주를 흘리저어 낙대를 떨쳐드니 자든백구ㅣ다 놀란다 어되서 사람의 흥을 알아 오락가락 (金光煜)

◇ 평사에 락안하고 황촌에 일모ㅣ로다 어선도 도라들고 백구ㅣ다 잠든적에 빈배에 날실어가지고 강뎡으로 (趙憲)

◇ 금파에 배를타고 청풍으로 멍에하여 중류에 띄워두고 고생가를 알일컷에 취하고 월하에 졋스니 시름업서 (任義直)

◇ 청산은 엇지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류수는 엇지하여 주야에 긋지아닛는고 우리도 긋지지 말아 만고상청 (李滉)

◇ 큰잔에 가득부어 취도록 먹으면서 만고영웅을 손곱아 헤여보니 아마도 유령리백이 내벗인가 (李德馨)

今日小說休載

社告

一、支局의名稱 松禾支局
一、支局의位置 松禾郡水橋里
一、支局員의職氏名 支局長 金鐸

右와如히松禾支局에對한一切을變更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社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서

總務兼記者 片永穆
記者 趙昌極
記者 宋百珣
記者 金翊星
外務員 林澤根

朝鮮日報松禾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서

記者兼會計 金得洙
記者 李東順
記者 金珏均
記者 金榮洙
記者(安城面駐在) 安漢翊
記者(安城面駐在) 申相政

朝鮮日報茂朱支局白

◇天氣豫報 晴一時曇
◇溫度 十四日正午 二七、九
◇比較 十三日最低 二六、八
◇日出 前七時四七 晝間 九時五〇
◇日入 後五時三八 夜間 一四時一〇

멍텅구리 가뎡생활 (83)
한국돈

(一) 지성으로 친구를 도읍는 바람은

(二) 마타두엇든 돈전대를 가지고 왓다

(三) 공돈이 생김으로 똘똘이 목도리를 사려나가

(四) 그돈이 대한돈이라 못쓴다고 안밧는다